

美 CES 첫 출격 광주시...지역기업, 세계 진출 희망 쏘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참가...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개관 9개 기업 최첨단 제품 선보여...벤처프런티어 1천만 달러 수출 계약

광주시가 지역기업과 함께 처음으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미국 'CES 2023'에 참가해 '광주공동브랜드(GIEL)' 홍보관을 개관하고, 문턱 높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희망을 쏘아 올리고 있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광주기업 9곳에서 생산하는 최첨단 공기청정기, 원격외선 히터 무풍 난풍기,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 등 15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개관 첫날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관심이 뜨겁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지역 9개 기업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 처음으로 참가해 광주 공동브랜드(GIEL) 홍보관을 개관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개관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기업인 등 광주 대표단 20여명을 비롯한 김영환 LA 총영사, 에드워드 손 LA 세계한인무역협회장, 유정영 코트라 사장, 이무형 삼성전자 부사장, 최호영 LG전자 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광주 공동브랜드인 지엘(GIEL) 브랜드로 CES에 첫 참가한 김보근 ㈜디케이 대표와 기운중 ㈜벤처프런티어 대표, 유재순 ㈜스리에이저투스

대표, 백형래 ㈜아이디에스 대표, 박철민 ㈜아이콘 대표, 민상운 ㈜디에이엠 대표, 정주원 티아이피인터 내셔널㈜ 대표, 정장 현성F&B 대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정우주 인디제이 대표 등 지역 기업인도 함께 했다.

이날 개관한 '광주공동브랜드(GIEL)' 홍보관에는 해외바이어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바이러스 특화 기술을 적용한 ㈜벤처프런티어의 공기정화살균기, 청정·살균 기능과 함께 광촉매 살균기술을 갖춘 ㈜디케이의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노약자 건강관리를 위한 ㈜아이디에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시스템'은 IoT기술을 활용해 가정 내 비접촉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면서, 현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와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이리뷰 박철민 대표는 "창업 7년 차에 문을 닫는 기업이 많은데 CES를 발판삼아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 현지 시장을 공략해야 할지 알게 된 만큼 꼼꼼한 준비로 해외시장 진출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주)스리에이저투스 유재순 대표는 "CES 참가 전까지 경쟁자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오히려 현장에 와보니 '한국적인 제품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이번 경험을 통해 미래 트렌드 파악 및 혁신 제품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CES 기조연설에 나온 '존 디어'는 농사

쟁기로 시작해 자율주행트랙터를 만들어냈다. 무려 186년이 걸렸고 광주의 혁신도 기업의 혁신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혁신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보관 개관과 함께 광주 공동브랜드(GIEL) 기업인 벤처프런티어는 미국 바이러스엑스버스터사와 연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터트렸다.

양측은 이날 계약을 통해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글로벌 마케팅, 광주 16개 협력사 판로 개척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벤처프런티어는 올해부터 매년 공기정화살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올리비아 김 바이러스엑스버스터 대표이사는 "우선 연간 1000만 달러를 수출하지만, 기술과 제품이 우수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혁신기술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다이스처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재유행 주춤...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재논의 되나

확진자 감소세·의료 역량 충족 신규변이·중국발 대유행은 부담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일시 중단됐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감소 등에 따라 정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발 코로나19 대확산, 신규 변이 발생, 설 명절 집단 이동에 따른 재유행 우려 등은 변수로 꼽힌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6766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5만3807명)보다 7041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1일(5만7501명)보다는 1만735명, 2주일 전인 지난 25일(5만8411명)보다는 1만1645명 줄었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724명→8만1039명→7만8554명→6만4094명→5만6954명→5만3807명→4만6766명으로, 일 평균 5만 770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32명으로 전날(219명)보다 87명 적다.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중 78%인 103명이 중국 입국자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544명)보다 18명 적은 526명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39.8%다.

이날 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 신규 확진자도 각각 1373명과 1597명 등 2970명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2000명대로 떨어졌다. 광주·전남은 지난 6일 3378명, 7일 3331명 등 최근 3000명대를 유지해 왔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당시 권고 전환 개별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월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개별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전국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2주 연속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도 12월 말 기준 68.7%로 기준에 충족한 상태다. 주간 치명률도 0.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4개 지표 중 최소 2개 이상은 충족한 셈이다.

다만 최근 2주 이상 위중증 환자가 500~600명

대로 여전히 많은 점과 중국발 코로나19 대유행 등은 여전히 부담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충족 여부와 함께 신규 변이 및 해외 감염확산 상황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단계 조정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독감의심환자 일주일새 10% ↑

울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5~31일)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0.7명으로, 직전 주(55.4명)보다 10% 증가했다.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12배가 넘는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기준으로 독감 입원환자는 598명으로, 전주(476명)보다 늘었다. 초·중·고교 겨울방학 직전 무렵의 집게여서 아동·청소년 환자 증가세도 이어졌다. 7~12세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1000명당 154.6명, 13~18세는 133.7명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학교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유행 추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광주시, 온누리상품권 장보기 행사...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3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 공직자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제수용품과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 등도 이용한다.

시는 또 해양수산부와 함께 양동, 양동수산, 양동건어물, 남광주, 남광주해뜨는, 봉선시장, 무등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14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연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

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한다.

시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도 강화한다. 오는 24일까지 특별방역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는 주 3회 소독을 실시한다. 광주시·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은 방역관리 권고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주최회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경매, 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부동산 특급

아파트

- 1.북구 문흥동 라인동산 2차 2층 (전체 리모델링 약5천만원상당)
평형 : 32평 / 즉시 입주 가능. 2억 8천 9백만원.
- 2.북구 용봉동 한신아파트 21층 (전체 리모델링 약3천만원상당)
평형 : 26평 / 즉시 입주 가능. 1억 3천 5백만원.
- 3.북구 일곡동 진로아파트 20층 (전체 리모델링 약4천만원상당)
평형 : 24평 / 즉시 입주 가능. 2억 1천 9백만원.

토지

- 1.전남 무안군 일로읍 / 전 약 1천평
-시 세 : 4억 5천만원 금 매 : 3억 5천만원

전원 주택 분양

- 소 재 지 :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 대 지 : 약 130평 (건물 30평)
- 주택규모 : 2층 주택 2동 (거실1, 방3, 화장실3, 2층 확장발코니)
- 분 양 가 : 1동당 4억 3천만원

년 수익률 20% 투자자 대환영

미래공인 062-954-8482
중 개 사 010-7527-7400

명품 매장 가맹점 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상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뒤편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062-511-084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22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1월 5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9일
당검태양광발전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당두검길 65
청산인 방관수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55 부동산 자이앤에이몰 110동 1803호
- 계약자 : 소 광 영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1월 9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